1타 2피 – 듀얼제품이 뜬다

메트로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무한도전 – 날카로운 정치풍자

‘고삐’ 풀린 이통사 진검승부 ‘시동’

SKT ‘착한 가족 할인’ LGU+ ‘한방에 yo’ 정지기간 KT만 웃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 20일 모두 정상화된다. LG유플러스는 19일부터, SK텔레콤은 20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KT의 단독 영업기간 가입자 이탈이 컸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재개와 함께 결합상품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카드를 앞세워 가입자 회복에 나선다.

◆전략 핵심은 결합상품·출고가 인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재개와 함께 결합상품 강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앞세워 가입자 회복에 나선다.

SK텔레콤은 20일 영업재개에 맞춰 가족이 함께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월 가계통신비를 1인당 최대 1만원씩 아낄 수 있는 요금할인 프로모션 '착한 가족할인'의 시행과 함께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8종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착한 가족할인은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 또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고객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가족과 결합하면, 가입 요금제와 결합 인원 수에 따라 24개월간 휴대전화 월정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으며, 결합 순서에 따라 할인 금액이 늘어난다. 결합 회선 이용 고객이 월정액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3000원~1만원, 7만5000원 미만 요금제 이용 시 월 2000원~7000원이 할인된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의 절반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결합 상품 가입과 혜택이 타사보다 훨씬 크다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기존에 출시된 휴대전화 단말기 중 8가지 모델은 20일부터 인하된 출고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계는 출고가 인하 모델과 관련, 갤럭시S4, 갤럭시S4 LTE-A, LG G2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결합상품인 '한방에yo'를 앞세워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서비스 강화를 통한 가입자 유지에 나선다. 동시에 자사 전용 스마트폰인 LG GX와 LG G프로, LG G2, 갤럭시S4 LTE-A, 갤럭시 메가, 베가 아이언 등 9종의 LTE 스마트폰 출고가를 평균 20만원 가량 인하한다.

5·18 참배객도 세월호 추모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메시지를 담은 종이배를 제단에 올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말기 출고가 내리고…잇단 결합상품 내놓고… 상품·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싸움 우려도

◆영업정지 기간 KT만 웃었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단독 영업에 나섰던 SK텔레콤은 14만4027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일평균 6262명의 가입자를 모은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일평균 8499명씩 총 18만698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단독영업중인 KT는 15일까지 일평균 1만1369명을 유치하며 총 21만5800명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했다. KT의 경우 단독 영업기간이 남은 만큼 가입자 증가폭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번 영업정지 기간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KT로 나타났다. KT는 이미 단독 영업기간 13일만에 경쟁사로 이탈했던 가입자 14만6710명을 모두 되찾았다. 이후 증가한 가입자는 모두 경쟁사로부터 이탈한 가입자를 데려온 셈이다.

KT는 12년만에 무너졌던 시장점유율 30%도 이번에 확보했다.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지속적인 이탈로 시장점유율 50%선이 무너졌다. LG유플러스도 가입자가 대거 이탈했다. 수성 또는 탈환을 위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칫 상품·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으로 또 다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lhy0403@metroseoul.co.kr

소변 이용 나트륨 추정방법 도입한다

정부가 국민건강 영양 조사 시 소변을 이용한 나트륨 섭취량 추정 방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국민건강 영양 조사 대상자 300명의 ▲24시간 소변 ▲단회뇨 ▲8시간 야간뇨 등을 수집해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영양 조사 나트륨 섭취 추정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나트륨 섭취량 상한치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일 나트륨 섭취량 조사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그중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24시간 회상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가 조사 하루 전 섭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나트륨 섭취량 산출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과거 기억만으로는 개인별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알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나트륨 섭취량 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김현자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연구원은 "개선된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나트륨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문화가 있는 명동, 전시 퍼포먼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명동'에서 신동구씨의 전시 퍼포먼스 '꿈의 조각들을 모으다'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문화원은 "한국 천주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오는 8월까지 '문화가 있는 명동-복음과 같이 이웃과 항상 영원히'를 진행한다. /뉴시스

'세월호 임시국회' 개회…여야 진통 예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세월호 임시국회'가 19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여야는 지난 15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20일), 긴급현안질의(20~21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27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27일) 등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후반기 원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특위 활동기간과 조사 대상, 청문회 일정, 위원장 등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검과 특별법 논의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과 특검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정기자 jhj@

왕이 中 외교부장 26일 방한…북핵 협의

다음 달 중 개최 가능성이 높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다.

오는 26일부터 1박2일에서 2박3일 체류할 것으로 알려진 왕 부장의 방한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알려진 지난달 21일 이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비슷한 동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이 임박했다 꺼지야 정부는 아직 없지만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왕 부장의 방한 계기에 북핵 불용 입장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집단 자위권 본격추구 등을 놓고도 한·중 간에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정몽준-박원순, 오늘 TV토론 첫 대결

●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첫 대결을 벌인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각자 서울시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는 26·28일에도 서울시 선관위와 방송기자클럽이 각각 주최하는 TV토론회가 열린다.

하반기 국회의장단 27일 선출하기로

● 여야가 하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오는 27일 선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의장단 후보들이 이번 주부터 속속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경우 황우여 전 대표와 18대 국회 때 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간 경쟁이 팽팽하다.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정갑윤·송광호·심재철 의원이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두고는 이미경·이석현·김성곤 의원 간 3파전 구도다.

北 23층 아파트 붕괴…사망 많을 듯

현지 당국 이례적 보도…"92세대 입주 추정"

북한 수도 평양의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지난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군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인명피해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13일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1동의 23층 아파트가 붕괴됐다"며 "북한에서는 건물 완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아파트에도 92세대가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붕괴로 상당한 인원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졌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등의 간부들이 지난 17일 사고현장에서 유가족과 평천구역 주민을 만나 위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4면에 사고 소식과 함께 한 간부가 주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진을 실었으며,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주민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렸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사과하는 북한 간부 북한 노동신문은 18일자 4면에 지난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살림집(주택) 건설장에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는 북한 간부의 모습. /연합뉴스

미사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미사'에 참석, 참회의 표시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朴 대통령, 오늘 세월호 대국민담화

발표 후 1박2일 UAE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을 위로하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확립 등에 대한 복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마친 뒤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

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라며 "UAE와는 중요한 기술 수주가 많고 UAE 정부는 그간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로고송·무용 없는 '조용한 선거'

지난달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조용한 선거'로 치르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천 후보들은 지난 17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유세차만 허용하고 로고송과 무용은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지사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유례없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인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로고송과 율동을 이용한 요란한 선거운동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평소 같으면 선거 특수를 톡톡히 누렸을 업계 관계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로고송, 유세 차량 등의 주문 규모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토지가격 부풀려 47억 빼돌려"

유병언 일가 횡령 의혹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토지 가격을 부풀려 47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8일 "검찰이 유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티알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티알지의 최대주주이자 유씨 일가가 소유한 트라이곤은 2012년 토지 2필지를 자회사인 티알지에 132억원에 매각했는데 원가를 107억원으로 공시했다"며 "대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25억원이나 챙긴 것이다. 티알지가 대주주의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8월 법원 경매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트라이곤의 감사보고서에 107억원(상품매출원가)에 산 것으로 되있는 토지의 원가가 69억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유씨 일가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85억 원짜리 토지를 132억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유씨 일가와 관계 회사들에 대한 66개 금융사의 대출을 점검한 결과 대출 자금 3747억원 가운데 90%가 은행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사라진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충남 아산 한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이 16일 이뤄졌다. 사진은 쌍둥이 오피스텔 가운데 한쪽 오피스텔이 무너진 모습 /연합뉴스

"만취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제대로 걷지 못했던 점, 집에 데려갈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았던 점 등으로 보아 노씨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이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50분께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잠이 들어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다혜기자

금수원 내부 첫 공개 18일 오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언론에 공개한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부. 오른쪽 건물이 유병언 전 회장의 스튜디오가 설치돼 8년 동안 유 전 회장은 이곳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고 금수원측은 밝혔지만 이날 스튜디오 내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또 살인 부른 층간소음

윗집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층간 소음으로 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찔러죽이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싸우다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5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조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위층 집을 찾아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했고, 진모(48)씨와 시비가 붙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 조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올라와 진씨의 복부를 찔렀고, 진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진씨가 아버지 제사를 위해 어머니가 사는 본가를 방문했다가 이같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

서울대 첫 간선 총장 선출

서울대 첫 간선제 총장이 다음 달 19일 선출된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16일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진은 총장 선임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했다.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는 다음 달 13일과 19일 두 차례 열린다.

다음 달 13일 이사회는 최종 후보 3인인 강태진(62) 전 공과대학장, 성낙인(64) 전 법과대학장, 오세정(61) 전 기초과학연구원장의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19일에는 신임 총장을 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간다. 이사 15명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8표 이상)을 얻으면 최종 선임된다. /윤다혜기자

"카메라 팔아요"… 허위 글로 22억 챙겨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중국교포 안모(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2000여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10월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고시원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중국교포와 중국 인터넷 메신저 'QQ'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도모했다.

안씨는 300여개에 이르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금액 등으로 볼 때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윤다혜기자

콜밴·택시 불법영업 버젓이…64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64건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명동·남대문·동대문 등지에서 단속을 벌여 택시 44건, 콜밴 20건의 불법 영업을 적발, 이 가운데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57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택시의 자격증 미게시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 승차거부(13건), 택시 호객행위(9건), 콜밴 자격증 미게시(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콜밴과 택시 번호판에 숫자가 잘 보이지 않도록 반사 스티커를 붙여 단속을 피하려 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제기한 관광 불편사항 881건 가운데 255건(28.9%)이 콜밴과 택시 관련이었다"며 "관광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리빙북 대출서비스 운영

서울시 관악구는 리빙 라이브러리인 '리빙북 대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년 도서관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14일 봉원중학교 학부모 독서모임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리빙북 대출서비스가 운영된다.

원효로 보도육교 개통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현대서비스(원효로 4가) 앞 보도육교가 17일부터 통행을 재개했다.

이번 공사로 기존 육교는 폭 4m, 길이 37m의 규모로 재단장됐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15인승 승강기 2곳도 함께 설치됐다.

세대공감 합창단' 운영

서울시 중랑구는 면목동에 소재한 중랑문화원이 '세대공감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랑문화원은 지난 3월 참가자들을 모집, 합창단을 발족해 오는 12월까지 기본적인 발성교육 등 합창 연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계언론, 서울시 환경 주목

지난해에 미국 유럽 아시아·중동 등 세계 각국 언론들은 월평균 2,04건 총 747건에 달하는 서울 관련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해 세계 각국 언론은 서울시의 환경·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재작년 해외언론 보도의 2%에 불과했던 두 건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15.1%(환경 71건·복지 39건)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언론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원전하나 줄이기' 등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다. 미국 CNN 등은 C40(도시기후변화리더십그룹) 특집방송을 통해 서울의 승용차 요일제 등을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별로 관심사나 보도 스타일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서울-베이징 자매결연 20주년 의 기대감을 반영한 국제교류 기사가 급증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CNN, 월 스트리트 저널 등 유력매체들 통해 서울의 문화 관광, 환경 등 시정 전반을 다뤘다.

집중근로 프로 참가자 모집

한국장학재단은 방학을 맞은 대학생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갖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계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계 방학 중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올해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9~23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16~27일 발표되며 근로기간은 같은 달 30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급이 9500원으로 1만여 개 일자리(2500여개 기관) 중 대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전공 관련 기관과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한성대, 감정수업 저자 특강

한성대학교는 20일 오후 2시부터 교내 미래관D1 C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정수업'의 저자 강신주가 '욕망의 인문학'을 주제로 감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연한다. 이 강연에는 한성대 재학생은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 후 추첨을 통한 사인회 및 저서 증정이 이어진다.

한편 강신주의 '감정수업'은 스피노자가 정의한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현실에 비춰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어 큰 공감을 얻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만든다

교육부, 휴대용 안전매뉴얼도 2학기 중 보급

교육부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고자 정책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7대 분야는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안전, 실내·실외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안전) ▲폭력과 신변안전(언어·신체폭력, 자살,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과 인터넷 중독(흡연, 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표준안은 안전유형별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교육 내용을 담는다.

교육부는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재를 만드는 한편 유형별 안전교육을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어느 교육시간에 진행할지, 이론 또는 실기 중 어느 방법으로 할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조할 수 있게 휴대용 안전매뉴얼을 제작해 2학기 중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유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보코하람은 알카에다"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 전쟁 선포… 공동 대응책 마련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200여 명의 나이지리아 여학생을 납치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카메룬, 차드, 베냉 등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안보 정상회의에서 정보 교환 등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상들은 납치된 여학생을 찾기 위해 좀 더 조직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굿럭 조너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여학생들을 납치한 보코하람은 서아프리카의 알카에다"가 됐다"며 "서아프리카가 힘을 뭉치지 않으면 이 테러리스트들을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치된 소녀들을 찾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나이지리아군 2만 명을 수색 활동에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 회의에는 서아프리카 5개국 정상과 회의를 주선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미국, 영국 관리들이 참가해 보코하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아프리카 정상들은 보코하람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대테러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보코하람과 그 본바인 안사루 지도자에 대한 유엔 제재 논의도 이뤄졌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이번주 유엔 안보리에 제재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유인 정찰기와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나이지리아에 보내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팀을 파견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보코하람은 카메룬 국경에 인접한 나이지리아 학교를 급습해 여학생 200여 명을 납치했다. 보코하람은 올해 들어서만 테러로 약 20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0년대 초반 활동을 시작한 보코하람은 현지 하우사어로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헉! 몸무게 77t 공룡 화석

아르헨티나 사막서 발견 역대 최대 추정

몸무게가 77t에 길이 40m 높이 20m인 역대 최대 크기로 추정되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됐다.

영국 BBC 방송은 이 공룡 화석이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 트렐레우 서쪽 250km 지점 라플레차 근처 사막에서 농장 직원이 처음 발견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코끼리 14마리를 합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거대한 공룡으로 알려진 아르젠티노사우르스보다도 7t 무겁다.

화석이 묻혀있던 암석의 연대로 봤을 때 이 공룡은 9500만~1억년 전 파타고니아 초원에 살았고 후기 백악기 티타노사우르스의 새로운 종으로 추정된다. /이국명기자 kmlee@

멕시코 웨이터 337명 기네스북 도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17일(현지시간) 웨이터 337명이 쟁반 위에 물컵과 맥주컵을 올린 채 달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웨이터 경주'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대리모 자라리 양성화하자"

metro Mexico

불법 출산 증가 논란

최근 멕시코에서 대리모를 통한 불법 출산이 증가, 논란이 일고 있다.

멕시코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리모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타바스코주와 시날로아 지역만 대리모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들의 경로를 통한 대리모 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술 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대리모 시술을 해 주는 시설 병원이 넘쳐 대리모 출산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차라리 대리모 제도를 양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Madres subrogadas, en venta y sin regulación

민주혁명당(PRD) 소속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의원은 최근 멕시코시티 시의회에 '대리모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불법으로 둘수록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차라리 법의 테두리 안으로 이들을 불러내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카를라 모라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코스닥
2013.44 (+3.24)	557.59 (-4.16)

금리	환율
2.84 (+0.01)	1025.00 (-1.00)

뉴스&뉴스

월드컵보며 다른 채널 녹화 KT스카이라이프는 16일부터 두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개인 녹화장치(PVR) 서비스를 출시한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공정위, 한전KPS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계열사인 한전케이피에스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케이피에스는 2010~2011년 기간 중 발주자인 서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지만,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을 94일~537일 지나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했다. /송주형기자 hoo

이건희 회장 병세 호전

삼성서울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18일 "이 회장의 모든 검사결과가 매우 안정적이고 완만하게 회복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지난 11일부터 입원 치료 중이다. /이재영기자

카드업계 영업재개, '총성없는 전쟁'

만회 위한 총력전… 신상품 출시 잇따라

올해 초 고객 정보 유출로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던 국민·농협·롯데카드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업계의 총성없는 전쟁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3사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상품 출시와 사은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마음을 씁니다'라는 기업PR광고로 시동을 건 KB국민카드는 기존 상품인 훈민정음카드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포인트가 특화된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고객 사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개선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객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문화·스포츠 후원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농협카드 역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바탕으로 영업 재개 시점에 맞춰 신상품 2종을 출시한다.

전월 실적이나 횟수·한도 등 복잡한 조건 없이 할인받을 수 있는 범용신용카드와 해외 할인 혜택을 집중시킨 '글로벌 언리미티드 카드'가 바로 그 주인공.

농협카드 관계자는 "글로벌 언리미티드 카드는 업계최초로 출시된 해외전용카드이며, 해외직접구매 고객들에게 특히 유용한 카드"라며 "올해 처음 출시되는 상품이니만큼 고객에게 좀 더 유익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부통제력의 확충을 신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청구할인과 구폰혜택 확대와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카드는 금융보안통합 솔루션을 도입해 보안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회원을 위주로 모집인을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영업재개를 대비해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보안강화와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정보 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던 타 카드사들도 신상품 출시 등으로 맞불작전에 나섰다.

하나SK카드는 이달 초 하나은행과 손잡고 장보기에 특화된 '예가마켓 체크카드'와 모바일 혜택을 강화한 '비달의민족 마음만부자 카드'를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기존 상품을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리뉴얼 상품을 가륵 중이며 우리카드는 최근 국군재정관리단과 협약을 맺고 군인연금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인연금증카드'를 출시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여파와 최근 발생한 연카드 멤의 도용사고 등 때문에 카드사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지는 않지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신규상품 준비와 마케팅 강화 등의 재정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m0209@metroseoul.co.kr

11번가 '마트 할인의 꿀 기획전' 11번가는 18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생필품을 인터넷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트 할인의 꿀' 기획전을 실시한다. /11번가 제공

공기업 임원 30% '관피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직계 감독 부처 낙하산 비중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2~2013년 국내 시장 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 기관장과 상임 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수는 333명이었고, 이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4명(45.7%)으로 절반이나 됐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 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직속 부처나 인근부처에서 내려온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이 직속 감독부처 출신이었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이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한국감정원이 11명 중 7명(63.6%)으로 2위에 올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해양환경관리공단(58%)→한국공항공사(46.2%)→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관료 출신 임원 중 직속 부처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주택보증(관료 출신 임원 수 4명), 여수광양항만공사(3명), 한국석유공사(3명), 한국관광공사(2명) 등 4곳이다. 관료 출신 임원 100%가 해수부·국토부 출신이었다. /정태균기자

Issue&View

/이상훈 기자 zenismo@metroseoul.co.kr

인터넷 속도도 부익부 빈익빈

빠른 회선 이용료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이 돈의 논리에 좌우될 전망이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즉 인터넷 속도도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6일(한국시간) 망 중립성(net-neutrality)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처리했다.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른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돈을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빠른 회선을, 돈을 조금 내는 기업에는 평범한 속도의 회선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콘텐츠 사업자가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에 돈을 더 내면 빠르고 특별한 회선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상황으로 예를 들면 네이버, 다음, 카카오와 같은 회사가 SK텔레콤, KT 등에 더 많은 돈을 주면 인터넷 속도가 '빵빵'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서비스를 위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돈이 많은 기업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있는 고객마저 잃게 된다.

가뜩이나 자본주의 논리 탓에 없는 기업이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 중의 기본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속도마저 자본주의에 물 든다면 '부의 집중' 현상은 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물론 돈 많은 기업들이라 해도 빠른 인터넷 회선을 따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추가 과금하는 방식으로 메울 공산이 크다.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이 FCC에 편지를 보내 "인터넷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한 이유다.

로또복권 (제598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4	12	24	26	36	45	2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833,896,594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4,479,825
3등	5개 숫자 일치	1,133,29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61~3
부산광고문의	(051)852-2100
독자센터	(02)721-9811

2002년 5월 31일 창간 / 정기간행물 서울특별시 가00208

박원식 한은 부총재 사퇴, 후임 촉각

임기 1년 남겨놓고 물러나… 장병화·김재천씨 등 거론

박원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9일 전격 사임한 가운데 후임 인사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부총재는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사임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지난 4월 초 취임한 이주열 총재의 인사와 조직 운영 등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2년 한은에 입행한 그는 2012년 4월 부총재를 맡았다. 임기는 3년으로 내년 4월까지였다.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원을 겸임하는 부총재 제도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중도 사퇴한 사례는 처음이다.

박 부총재는 사내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이런 결정은 한은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가 떠난 뒤에도 모든 분이 한마음이 돼 조직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유지함으로써 한은 위상을 더욱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퇴임식을 사양하고 시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간 한은 안팎에서는 "이 총재가 취임하면서 중도 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줄곧 나왔다. 두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했기 때문이다.

김중수 키즈'의 대표격인 박 부총재의 사퇴로 이 총재의 조직 개편과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임에는 이 총재가 부총재를 맡던 시기에 부총재보를 지낸 장병화 서울외국환중개 사장과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장세근 전 부총재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 사장과 김 부사장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된 장 전 부총재보는 대학 강의도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재의 인사 점문의 태스크포스(TF) 총괄담장을 맡은 이흥모 국장의 부총재보 발탁설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국·실장 등 정기인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기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양인 기자 may @metroseoul.co.kr

‘신의 직장’ 문 열렸다

공항공사·공원관리공단 등 공채

신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공기업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신입사원(5급갑/6급갑 고졸)을 모집한다. 연령·성별의 제한은 없으나 시설·기술분야의 경우 지정 가능시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5급갑은 27일까지 해당 홈페이지(kac.career.co.kr)에서, 6급갑 고졸은 20일까지 스펙초월채용홈페이지(www.starting.re.kr)에서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

예술의 전당도 신입·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신입은 청년 인턴으로 5개월 근무 후 6급으로 임용된다. 경력직은 회사사업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학력의 제한은 없다. 지원접수는 25일 오후 5시까지 해당 홈페이지(sac.incruit.com)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신입직원(채용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인턴 5개월 근무 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규직(약 70%)으로 전환한다. 20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krnetwork.career.co.kr)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규직원(6급갑)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이다. 지원접수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홈페이지(www.nps.or.kr)로 하면 된다.

/이국명 기자 kmlee@

방글라데시 한류 졸업식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소재 지방정부교육개발원에서 17일 부영그룹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형 졸업식 시범행사를 개최했다. /부영그룹 제공

수출입銀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은 희망씨앗 대학생 봉사단 140명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0개지역에서 14팀으로 나뉘어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연중 6회 이상 펼칠 예정이다.

수은은 전국에 소재한 본·지점과 연계해 대학생 봉사단의 활동을 전면 지원하며, 7개월간의 팀별 과제가 끝나면 우수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 @

원화 강세에 수혜주 ‘고공행진’

아세아시멘트 40%↑ ·포스코 31만원대 회복

올 들어 원화가 가파르게 절상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의 주가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원화 강세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는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하락 곡면으로 들어서 지난 7일에는 5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인 1020원대로 진입했다.

연초 대비 원화 절상폭은 3.3%이다. 환율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난달부터로 놓고 보면 4.1%로 글로벌 주요 통화 중 가장 절상폭이 높았다.

이에 원화 강세로 비용이 절감되거나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세아시멘트의 주가는 올 들어 40% 넘게 상승했다.

시멘트 값 인상 기대감과 함께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의 가격 부담이 환율로 인해 줄어든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최석원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올해 유연탄 가격이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가의 40% 비중을 차지한다"며 "올해 원·달러 환율이 4.1%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순이익이 4%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업종도 최근 원화 강세에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 3월 초 장중 26만8500원으로 52주 최저가까지 빠졌다가 최근 31만원대를 회복했다.

세무조사와 자동차 강판 인하, 원화 약세로 인한 외화환산 차손 발생 등의 악재에 약세를 거듭하던 포스코의 주가는 지난달 7거래일 연속 오르는 등 완만 국면에 들어섰다.

박애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외화부채가 많은 업종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um1@

KB은행, ‘마음편한통장’

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하는 'KB마음편한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은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출시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과 연계한 1호 상품이다.

신규시 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그 이후로는 직전 6개월 동안 일정 조건의 실적(카드결제/급여이체/가맹점결제/연금수령)이 한번 이상 발생한 경우 6개월 단위로 보험을 갱신한다.

부가서비스인 피싱/해킹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금융사기에는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을 포함한다.

/김보경 기자 ...@

www.HanaTour.com
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예약기간 2014년 4월 2일~2014년 5월 30일 출발기간 2014년 9월 1일~2014년 12월 31일

상세내용 기간 중 신규예약 커플에게 50만원 할인 및 지역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일부상품 적용)

반얀트리 풀빌라	럭스 워터빌라	쉐라톤 리조트	힐튼 하와이안
코사무이 6일	몰디브 6일/7일/8일	괌 4일/5일/6일	오아후 6일/7일
2,299,000부터	2,490,000부터	1,790,000부터	2,490,000부터

세상구경 오세요!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일시 2014년 5월 23일(금요일)~2014년 5월 25일(일요일) AM 10:00~PM 18:00

장소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 2전시장 7,8홀

★★★ 허니문 최강혜택

1. 현장 예약 고객 전원 영화예매권+전기포트 증정!
2. 최대 커플당 100만원 할인혜택!
3. 각 지역별 경품혜택 : 양모이불, 백화점상품권, 라텍스베개, 압력밥솥 등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분양 성공 "눈높이 맞춰라"

동탄2신도시 젊은층·위례신도시 중년층 타깃 효과

주택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분양에 앞서 지역민들의 취향부터 파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마케팅을 펼칠 때 분양에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20~30대 젊은 층의 거주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감각적인 설계를 선보여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근 공급된 '신안 인스빌 리베라2차'는 어린 자녀의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물질을 줄여주는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점을 강조해 평균 3.74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일주일 만에 100% 완판을 기록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은 중소형 아파트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반대로 강남권 인접의 위례신도시는 관심 고객 대부분이 잠실을 비롯한 강남 분당에 거주하는 40~50대인 점을 감안, 고급화 마케팅에 역점을 둬 성공한 경우다. 지난 2월 분양한 '위례2차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내부 인테리어를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몄다. 주방에 흔히 쓰이는 인조 대리석 대신 내구성이 뛰어난 강화대리석을 깔았다.

위례신도시 A3-6b블록에서 분양을 앞둔 '신안 인스빌 리베라' 역시 전용면적 98~101㎡ 중대형 아파트 실내마감재와 가구에 E0등급 고품질 제품을 사용,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에서는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평택의 명문학군이 밀집된 비전동과의 인접성을 강조한다. 반도건설이 소사벌지구에서 선보일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고교생들의 수능준비와 내신향상을 위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선욱기자 sun@metroseoul.co.kr

쿨비즈로 시원한 여름옷 현대산업개발과 자연사 통대아이파크몰은 5월부터 9월까지 쿨비즈 복장 착용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아이파크몰 제공

1억 모으기, 중위험·중수익 상품 주목

금융가 사람들

■이원홍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

주요 포털사이트에 '1억'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1억원 모으기'가 자동완성어로 뜬다. 재테크의 첫걸음으로 꼽히는 종잣돈(seed money)으로 1억원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목표했던 돈을 모아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원홍(사진) 하나은행 강남PB센터 부장은 이런 때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험이 없는 은행예금은 금리가 2%대에 불과하고, 고수익 상품은 원금을 날릴 위험도 크다. 적당한 수익을 거두며 일정 부분 위험은 감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원홍 부장은 "지수형 ELS, 롱숏펀드, 하이일드펀드 3가지가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꼽힌다"며 "수익률은 평균 6~7% 정도로 은행 금리보다 높고, 변동성이 4% 내외로 존재하지만 주식형펀드가 10%대의 두 자릿수인 것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LS의 경우 종목형으로 할 경우 수익률은 10%가 넘는데 반해 10개 중 3~4개는 원금 손실이 있었다"며 "지수형 노낙인상품도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손실 사례는 없고, 이론적으로도 종목형보다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더 이상의 고수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중수익이 최선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원홍 부장은 "예전처럼 은행에만 돈을 맡겨둬도 충분한 수익을 올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6% 전후를 목표수익률로 정하되, 투자기간은 길게 해 복리효과를 노리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욱기자

세상에 없던 하이브리드 車 나왔다

■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364마력 엔진+ 50kW 전기모터 조합 ·민첩하고 날렵한 핸들링 '일품'

인피니티는 전통적으로 연비보다는 고성능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연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두고 오로지 강력한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주행성능을 보여주는 데 주력해왔다.

그런 인피니티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모델이 Q50이다. 가솔린 터보와 디젤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등 3가지로 등장한 이 차는 한국에서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우선 출시됐다. 소비자들의 초반 반응은 디젤에 집중되고 있다. 벤츠 엔진의 신뢰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뛰어난 연비가 인기의 비결이다. 올해 2~4월 동안 디젤이 649대, 하이브리드가 16대 팔릴 정도로 디젤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지난 3월 열린 Q50 시승회에서는 디젤 모델 위주로 다뤄서 최근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봤다.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정숙성이다. 저속과 정지 시에 엔진이 정지되고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디젤 모델의 진동과 소음은 찾아볼 수 없다.

가속 반응은 동급 경쟁자 중 가장 빠르고 인상적이다.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3도 상당히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Q50 하이브리드의 반응이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렬하다. V6 3.5ℓ 364마력 엔진과 50kW의 전기모터를 조합한 Q50 하이브리드는 306마력 엔진과 40kW의 모터를 조합한 액티브 하이브리드3를 압도하고 실제 주행에서도 이를 입증했다.

디젤보다 가벼운 엔진은 뛰어난 핸들링을 완성하는 밑바탕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장착되는 다이렉트 어댑티브 스티어링이 민첩하면서도 날렵한 반응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의 쾌감을 맛보게 해준다.

인피니티 Q50은 인테리어의 질감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사진 왼쪽 아래). 파워트레인은 V6 3.5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로 구성돼 있다(오른쪽 아래).

실내에서는 인피니티 인터치 시스템이 눈에 띈다. 핸드폰을 차와 블루투스로 연결할 경우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 등의 SNS도 차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Q50은 가속력이 뛰어나면서도 연비를 두 자릿 수로 향상시킨 점이 돋보인다. 표시 연비는 도심 11.6km/ℓ, 고속도로 14.1km/ℓ, 복합 12.6km/ℓ로, 이전 모델인 G37에 비해서 약 30% 높을 뿐 아니라 배기량이 더 낮은 G25보다도 뛰어나다. 경쟁자인 BMW 액티브 하이브리드3는 도심 11.0km/ℓ, 고속도로 14.2km/ℓ, 12.2km/ℓ다. 시가지를 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1.5km/ℓ를 기록했다.

Q50은 인피니티가 중시하는 강력한 성능에 경제성을 더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액티브 하이브리드3보다 가속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1800만원 저렴한 6760만원이다. 인피니티의 남은 과제는 브랜드 밸류를 더 끌어올리는 일이다. 한국에서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한다면 더욱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 줄 평가: 빠르고 조용하다. 핸들링은 일품이다 ▲별점: ★★★★★ (별은 다섯 개 만점, ☆는 1/2)

기아차, 편키아 디자이너 8기 모집

기아자동차가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아차 공식 블로그 '펀키아(http://fun.kia.com)'를 통해 대학생 마케터 '펀키아 디자이너(FunKIA Designer) 8기'를 모집한다.

국내 대학생(2014년 7월 졸업예정자 제외)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모집기간 동안 펀키아에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하고, 기아차 공식 페이스북의 펀키아 디자이너 모집 포스팅을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공유하면서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 도전하는 자신의 각오, 활동 계획 등을 100자로 작성하면 된다.

기아차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할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펀키아 디자이너들은 5명이 1개 팀으로 총 3개 팀을 이뤄 기아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체험하며 관련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으로 제작된 영상, 사진 등은 '펀키아'의 콘텐츠로서 기아차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실제로 펀키아 디자이너 5기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펀키아 프리포즈' 영상의 경우 기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조회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아차는 이번에 모집하는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게 정기적인 마케팅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기아차 마케팅 광고, 상품 담당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예비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또한 기아차는 펀키아 디자이너 8기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펀키아 디자이너로 선정된 팀원에게는 해외 마케팅 현장 취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펀키아 디자이너는 대학생이 기아차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현업 담당자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2010년 10월 '펀키아 디자이너 1기'를 모집하고 젊고 창의적인 대학생들에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이외에도 유네스코(UNESCO)한국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세계 청년 봉사프로그램 '기아 글로벌 워크캠프', 환경을 주제로 한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에코 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 등 미래 주역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스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쉐보레 대리점 28곳, GM '명예의 전당'에

쉐보레(Chevrolet)의 국내 최우수 딜러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28곳이 GM 해외사업 부문(GM International Operations, 이하 GMIO)과 GM차이나 내 영업 및 정비 서비스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알려지는 그랜드 마스터(Grandmaster)에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2014 그랜드 마스터 시상식은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렸으며 국내 쉐보레 최우수 딜러 2곳, 대리점 16곳, 서비스센터 10곳 등 28곳을 포함 GMIO와 GM 차이나 내 220개의 대리점과 서비스센터 관계자 총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GMIO 스테판 자코비(Stefan Jacoby) 사장과 주요 임원진을 비롯해 한국GM 세르지오 로샤(Sergio Rocha) 사장이 참석,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랜드 마스터로 선정된 28개 국내 쉐보레 딜러, 대리점 및 서비스센터 대표들은 배우자와 함께 14일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시상식, 갈라 디너 등의 공식 만찬과 영국박물관, 옥스퍼드 대학 투어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 /임의택기자

<국산차·수입차 차종별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베르나	730	630		-	
	아반떼HD	870	500			
	YF쏘나타	1,340	1,410	1,330	1,750	1,950
	그랜저HG	-		2,210	2,440	2,780
기아	프라이드	610	710	790		-
	포르테	690	1,120	1,070	1,190	1,220
	스포티지R	-	1,770	1,830	2,030	2,150
	쏘렌토R	1,820	1,880	2,020	2,250	
르노삼성	뉴SM7			2,160	2,380	2,71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510	2,050	2,200	2,510	2,820
	티구안	2,630	2,650	2,950	3,260	3,67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metroopinion

민생경제 대책 소홀함 없어야

뉴스룸에서
김 하 성
<부국장>

311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실종자중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안전불감증, 무능과 무책임, 독버섯처럼 번진 부정부패, 인간성 상실, 악성 유언비어 난무.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번 처럼 전국적 애도와 분노가 표출되면서 집단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도 없었다.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참사 이후 각종 행사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 운송, 숙박 등 내수경제가 얼어 붙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일말 보고서는 우리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레저·요식·운송업의 신용카드 승인액이 보름새 감소되거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고 발표했다. 에프엔가이드 보고서도 주요 내수기업 86곳 중 45곳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달 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애꿎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요즘 택시기사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죽을맛이라고 하소연한다. 여행객 발길이 뚝 끊어진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 경제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경제적 고통이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과 운송, 숙박업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각 경제 주체들도 슬픔을 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또한 선제적 대응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애도의 마음은 간직하되 일상으로 돌아가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더 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물론 남은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올 수 있도록 구조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4·16 비극이 일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다. 지난 4월의 절반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보냈다. 또한 가장 훈훈해야 할 5월 가정의 달도 온 국민이 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참사를 수없이 겪었지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린 적은 없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사고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련의 과정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명해진다. 우선 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상같은 엄벌이 이뤄져야 마땅하고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물론 사회안전망을 빈틈없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인사정책에서 오는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국민사이에 안주해 있는 '설마'나 '괜찮아' 하는 안일한 안전의식 개조운동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먼저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갈 개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유가족을 중심으로 사후 수습에 새로운 선례를 남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쥘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깊은 쇼크에서 깨어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망연자실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겨내지 못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가 걱정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이후 각종행사와 모임이 취소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었다. 실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올 성장률을 0.1~0.2%포인트를 하향조정해야 할 판이다. 이는 모처럼 불씨를 지폈던 경기회복에 찬물이 되고 특히 서민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세가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예의이다. 미국이 끔찍한 9·11테러 직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같은 선례를 기억해야겠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수습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좌편향 불순세력들의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감성보다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성숙사회의 길목에 들어설 수 있다.

포토프리즘

'너무너무 시원해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한 어린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낮 최고기온이 27도 까지 올라간 이 날 분수대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손진영기자 son@

영업재개 카드 3사, 기본을 지켜라

기자수첩
박 아 란
<경제산업부 기자>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흔히 '그거야 기본이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본을 지킴은 고객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난 17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 종로구 국민카드 본사에는 '고객 정보를 최고로 삼겠다'는 결의문이 적혀있다.

올 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석달간 영업이 정지됐던 KB국민, 롯데, 농협카드사는 이날 0시부터 신규 고객 모집과 신규 현금서비스 등 신용 대출 영업에 들어갔다.

앞서 영업정지 기간에 카드3사는 약 160만명이 넘는 고객이 이탈하고,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어 신규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 재개가 시장 점유율 확보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녹록치 않은 카드 시장 환경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

실제 유출됐던 1억여건의 고객정보 가운데 8000여만건이 대출 중개업자에게 흘러간 사실이 검찰수사에 드러났는데다 여타 카드사의 앱카드 명의 도용 사고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고객신뢰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업재개가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신뢰회복'.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인문학 산책
김 만 용
<성균관대 교수>

"인문학 공부가 정말 절실하더라구요. 먼저 인간이 되지 않고 뭘 하겠어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다. 탐욕스러운 정치인, 야비한 검사, 노동자들을 짓밟는 경영자 등은 모두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고통이 확산되고 병이 깊어간다.

세계적인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에서 인문학이 결코 빼놓으면 안 되는 교육항목으로 "노동의 역사"를 꼽고 있다. 인문학과 노동의 역사가 웬 관계냐고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다. 인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존엄을 지켜내는 성찰이라고 한다면, 노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존재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은 핵심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불온시 된다. 마사 누스바움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멸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의 원제목은 <이익을 앞세우지 말라(Not for Profit)>라는 걸 떠올리면, 그녀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파악된다.

세월호 참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 가운데 중심에는 사람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모신 사회의 비극이라는 점이다. 자본의 탐욕과 지배가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희생시키는 논리와 현실의 끝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이번에 더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이 모든 가치와 판단의 본질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떤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제 더는 달리 이론(異論)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 대부분은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멸시와 노동의 착취, 무한경쟁으로 몰아가는 생산력 주의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른 뒤에 다시 절감하게 되는 진실이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나지 않았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사회의 행복을 위한 첫 조건이다. 더는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그로써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등장한 지 무려 200만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인간으로 진화하는 일이 멀고도 멀었나 보다.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종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서희씨(58세 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씩씩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대안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상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산업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년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생존 전선팀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상품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대한노인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퇴행성 관절염 환자 후원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전개

극심한 통증 퇴행성관절염 '말기',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줄고 기능 회복
전화·우편·이메일로 본인 외 대리인도 신청 가능

#광명에 사는 김씨(71)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김씨는 음식점 서빙과 배달을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고된 일에 무릎 통증도 자주 느꼈지만 가족들 생각에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병원을 찾은 김씨는 '무릎 퇴행성관절염' 말기 상태를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수술이 두려웠지만 통증이 줄고 무릎 기능이 좋아진다는 말에 수술을 받게 됐고 수술한지 2년이 지난 현재 김씨는 통증 없이 무릎의 기능도 회복돼 걷거나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첫 여행을 떠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기도 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인공관절 수술, 퇴행성관절염의 해결책

퇴행성관절염은 지속적인 관절 사용으로 연骨 관절을 보호해주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하면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등을 통해 관절을 보존할 수 있다. 하지만 연골이 닳아 없어져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해 걷기가 힘들며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말기에는 인공관절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해야 된다. 인공관절을 이식해 통증을 줄이고 무릎 기능의 회복을 돕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 기법이 발전하면서 환자 무릎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공관절' 등이 도입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해졌다.

◆인공관절 수술, 비용 높아 저소득층 환자들에겐 큰 부담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을 이식하는 큰 수술이다보니 비용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 쪽 무릎만 수술받아도 약 250만~300만원이 들며 양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는 대략 500만원 정도가 든다. 또 입원비와 간병비, 검사·진료비가 추가로 든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본인 부담금은 두 배로 증가한다. 이처럼 결코 저렴하지 않은 수술 비용 때문에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대한노인회, 저소득층 환자 용기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나서

이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 대상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1종, 차상위계층)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다.

나병기 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단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80%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무릎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대한노인회는 1969년에 설립돼 약 300만 명의 회원을 총괄하는 사단법인으로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노인생활 소식지 발간사업, 노인취업지원본부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캠페인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전화 및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한노인회(245개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전화 1661-6695(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우편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43(대한노인회 보건의료사업단) '인공관절 수술 후원 캠페인' 담당자 앞

이메일 okk6950@naver.com (캠페인 담당자)

홍염미 교수, 대한고혈압학회 '우수 연구 과제' 선정

홍염미(사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대한고혈압학회로부터 학술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홍 교수의 '태아 프로그래밍에 의해 유발된 고혈압 백서에서 코자 XQ(Cozaar XQ) 투여에 의한 혈압 감소 및 유전자 발현 변화'라는 연구가 우수 연구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소아과학회, 대한심장학회, 소아고혈압연구회 등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학회에서 우수 초록상,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유태용기자

갈더마코리아, '365일 피부 건강' 캠페인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박종범)가 오는 24일과 31일 양 일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갈더마와 함께하는 365일 피부 건강 캠페인' 봄 시즌 이벤트를 실시한다.

회사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야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건강한 피부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 및 자기관리 습관의 노하우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스트레이츠존 게임 등을 준비해 이색 체험의 기회와 함께 아이스킨, 풍선 등의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갈더마코리아는 지난해 시작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피부 건강을 위한 정보와 우수한 의약품을 꾸준히 소개할 방침이다. /김학철기자 kimc0814@

비염 치료가 성적관리 '첫 걸음'

어린이·청소년, 식습관 개선·전문의 찾아 치료해야

일교차가 커지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늘고 있다. 그중 어린이 청소년 환자들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집중력 저하, 잦은 두통 등을 호소하며 공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비염 치료해야 공부에 집중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학교는 여러모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산재한 공간이다. 건조한 공기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이때 콧 속으로 이물질이 몰리거나 공기가 순환하지 못해 비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단기간 집중력이 필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게다가 간헐적으로 두통이 나타나도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성적관리에 어려움을 받는 경우라면 비염을 치료해 공부에 집중하기 쉬운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식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먹거리는 알레르기 비염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단 음식을 피하고 날씨가 덥다고 성실히 냉한 음식이나 냉음료를 즐기는 습관도 삼가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근본적인 비염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은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면 축농증으로 진행돼 만성 코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희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긋 지긋한 허리, 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말기 디스크 질환도 10분 정도 고주파면 OK!
환자 증상·질환에 따라 전문의가 먼저 진단 후 맞춤형 치료 실시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다가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 당김과 통증으로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S씨는 병원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이에 S양과 같은 방송인 런닝맨에 출연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방문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이후 상태는 호전됐고 S씨는 지금 일상에 복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도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강남조이스병원을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이 원장은 S씨와 마찬가지로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로 휘성을 치료했으며 휘성 역시 통증이 사라져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런닝맨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종국과 개리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방송 활동 및 런닝맨 촬영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승주(오른쪽)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질환 치료와 환자 회복이 중점

이처럼 3년 전부터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이다.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병변 부위를 직접 관찰하며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한 단계 체계화했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 환자는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아울러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 본원 외에 외에 교대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치료 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개설해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황재용기자

"임신 중 요오드, 부족해도 넘쳐도 안 돼"

김경원 서울대병원 교수
서울 국제 내분비학술대회 서 갑상선 기능 중요성 밝혀

김경원 서울대병원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서울 국제 내분비학술대회 2014'에서 "임신 중 산모의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 몸은 해조류나 어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를 이용해 갑상선호르몬을 만든다. 임신을 하면 산모가 태아의 유일한 요오드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임신 전에 비해 산모의 요오드 필요량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삼 면이 바다라 전통적으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국가다. 또 외국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어 임신한 경우에도 별도의 요오드 공급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요오드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미숙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태아의 신경인지능력 발달에 좋지 않으며 과다 섭취할 경우에도 산모와 태아에게 여러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한 인지가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내분비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내분비 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올해는 전세계 당뇨, 갑상선, 신경내분비, 골대사 분야 등 내분비 관련 의료진 및 과학자 약 1600여 명이 참석했다.

/황재용기자 hwangjy@metroseoul.co.kr

한경희생활과학, '상쾌한(HAAN)' 출시

자동 제습 시스템으로 간편해

한경희생활과학(대표 한경희)이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한 대용량 제습기 '상쾌한(HAAN)'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17ℓ 대용량으로 사용시간이 늘었고 소음이 적어 24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자동 제습 시스템을 갖춰 버튼 하나로 최상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프리필터를 통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오토 스윙 기능으로 깨끗한 공기를 집안에 퍼뜨리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실내 빨래 건조를 위한 의류 건조 모드가 추가돼 장마철에도 빨래를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경희생활과학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지마켓과 온라인 공식 쇼핑몰(www.HAAN.com)을 통해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되는 론칭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정혜인기자 hjung@

뉴트리라이트, '제8회 대학생 영상 공모전'

뉴트리라이트가 7월 27일까지 '제8회 뉴트리라이트 대학생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브랜드 스토리 ▲건강이 진짜 스펙이다 ▲식물영양소 캠페인(파이토칼라 캠페인)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UCC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1장 분량의 기획서를 사전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뉴트리라이트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성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학철기자

붉은 양파의 건강·멋이 한 곳에 – '치폴라로쏘' 인기

교촌에프앤비, 강남교자와 함께 론칭 종합외식기업 박차

교촌치킨으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대표 권원강)가 종합외식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론칭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치폴라로쏘(www.cipollarosso.com)'가 은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치폴라로쏘(Cipolla Rosso)는 이탈리아어로 '붉은 양파'를 뜻한다. 이 레스토랑은 붉은 양파의 강렬함과 독특함을 모티브로 한 캐쥬얼 레스토랑에 모던 스타일을 가미했다. 현재 삼성점과 신세계 천안 등의 직영점 2곳과 가맹점 4곳을 운영 중에 있다.

치폴라로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요리'라는 주제로 거의 모든 메뉴에 붉은 양파를 사용한다. 붉은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이 뛰어나고 암과 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또 살균 해독 작용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늘과 각종 채소, 오징어 먹물 도우 등이 함께 사용된다.

제품군에는 건강한 샐러드,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 독특한 리조또와 라이스, 고급스러운 스테이크가 50여 종이 넘는 와인과 이곳의 품미를 더해준다.

게다가 레드&블랙의 강렬한 컬러가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해고 블링블링한 샹들리에 장식과 레드 커튼, 넓은 공간의 탁 트인 테이블 등이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드라마와 영화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치폴라로쏘 삼성점은 5월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고객별로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인기 와인과 음료, 직접 만드는 에이드의 '1+1행사'를 비롯해 성년의 날을 맞아 95년생 방문자에게는 스위트 크랜베리 피자를 제공하고 있다.

/정흥권기자

펜타즈 호텔, 오픈 2주년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사장 박동현)이 오픈 2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펜타즈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한다.

가족과 함께 호텔의 프리미엄 라이브 뷔페 라구뜨를 이용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 한 후 URL을 호텔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등록하면 된다.

호텔은 우수 후기를 남긴 고객을 선정한 후 호텔 스위트 룸 1박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텔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라바 뮤지컬 S석 입장권 2매와 라구뜨 할인 혜택, 2인 퀴트니스 이용권 등으로 구성된 '라바 뮤지컬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헤드, '체지방률 감량' 캠페인

노출 많은 여름, "자율 운동 동기부여 기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헤드(HEAD)가 인바디와 함께 '체지방률 감량 캠페인'을 실시한다.

베어풋 출시 4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률 감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 문화를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캠페인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헤드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제품(정상 제품에 한함)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장별로 선착순 50명에 한해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을 한 고객들은 체지방률 감량 확인 기간 전까지 약 한 달 동안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체지방률을 4% 감량한 후 해당 매장을 재방문해 체지방률을 측정하면 된다. 성공 확인 기간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4% 체지방률 감량에 성공한 고객들은 구매한 금액만큼 원하는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염수영 헤드 영업기획팀 부장은 "헤드는 고객들에게 건강한 라이프-다이어트 문화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특히 노출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자율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이벤트 개요
- 대상 고객: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정상 제품 한정)
- 참가 신청 기간: 5월 19일 ~ 25일
- 성공 확인 기간: 6월 19일 ~ 21일
- 혜택: 구매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제품 증정
- 캠페인 문의: 1588-7667

◆참여 방법
- 전국의 헤드 매장 방문 후 헤드 제품 구매
- 인바디로 체지방률 측정 후 참가 신청서 작성
- 측정 기간 내 캠페인 참가한 매장을 재방문해 체지방률 감량 측정

'1타 2피'…실속 만점 듀얼 제품이 뜬다

담배부터 쥬스·도넛·화장품 등 다양하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고민의 순간이다. 이 고민, '짬짜면' 같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실속형 '듀얼' 제품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KT&G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초슬림담배에 캡슐을 적용한 '에쎄 체인지'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필터에 내장된 캡슐을 터뜨리면 기존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상쾌한 맛으로 변화한다. 이 제품은 지난 3월까지 11억600만 개비가 판매돼 지난 5년간 출시된 신제품 중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캡슐담배시장의 1위 제품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가 지역에선 14%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일만큼 20대 젊은층 흡연자들에게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KT&G는 일반 캡슐의 두 배 이상 크기인 '몬스터 캡슐'을 적용한 '보헴시가 쉐이크'와 한정판 '디스 아프리카 룰라 에디션' 등의 '2in1'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우유 '아침에주스 듀엣'은 오렌지와 포도 맛의 두 가지 주스를 한 병에 따로 담은 제품이다. 다양한 맛의 주스를 먹고 싶지만 둘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 고민인 소비자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두 제품이 분리돼 있어 한쪽을 다 마시고 넣어두어도 다른 한쪽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겉은 도넛처럼, 속은 파이처럼 생긴 던킨도너츠의 '뉴욕 도넛파이'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크로넛'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춰 개량한 제품으로 바삭함과 쫄깃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 도넛 속에 32겹의 페스츄리 노우가 층층이 쌓여 있어 속은 파이처럼 부드럽지만 겉은 도넛과 같은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외모도 '경쟁력'이라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것저것 화장품을 챙겨 바르는 것이 귀찮은 남성들을 위한 '1샷 2킬' 제품도 등장했다. 라네즈옴므 '듀얼액션 에센스로션'은 미백 에센스와 모공탄력 에센스가 함께 구성된 일체형 케이스의 '2in1' 제품이다. 한 번의 펌핑으로 두 가지 에센스가 하나로 섞여 칙칙한 피부 톤과 탄력 잃은 모공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귀차니즘'에 빠진 남성들에게 인기다.

/정영일기자 ****@metroseoul.co.kr

김건모 · DJ DOC · 조성모 · 룰라 · 현진영 · 김원준 · DJ춘자

2014. 06. 07. SAT 토 pm 6:00 |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KBS | 주관 S2 | IS | HOMP | KSYSTEM | lavoce | 후원 아랑타이

예매 INTERPARK · 02)1544-1555 | YES24.COM · 1544-6399

www.s2enter.com

공연문의 · 02)3143-5156

"7년반의 반성이 지금의 날 만들었죠"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감독

29일 개봉될 영화 '끝까지 간다'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모친상을 당한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뺑소니 사고로 정체불명 남자의 시체를 어머니의 관에 은닉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정교하면서도 긴장감 있고 유쾌하게 그렸다.

이 영화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출한 김성훈(43) 감독이 무려 7년 반 만에 내놓은 두번째 장편이다. 14일 개막한 제67회 칸 영화제의 감독주간에 초청되며 해외에서 먼저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김 감독이 칸으로 떠나기 하루 전 그를 만나 칸에 초청된 소감과 영화의 탄생 과정을 들었다.

◆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소감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서 구경하러 가본 곳이라고는 자연농원이 전부였는데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의 장에 초대받아서 영광이고 기쁘다. 그러나 낯선 언어가 들리는 곳이라 조금 두렵기도 하다.

◆ 평단에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내가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노력 밖에 없더라. 이번 작품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 동안 복잡고 힘들었지만 진심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했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엔 내가 재미없는데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런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개봉이 되지 않아 관객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한다.

◆ 이번 작품을 내놓기까지 무려 7년 반이 걸렸다. 전작의 흥행 실패가 뼈아팠던 것 같다.

자기 반성을 할 시간이 필요했다. 보통 사람들은 남탓 시대탓을 하지만 그러면 발전이 없다. 나 역시 거울로 맨낯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찍고 싶었다. 7년 반이라는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기였다. 물론 도망갈 곳도 없었다. 영화는 내게 놀이터이자 일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만 했다.

◆ 시나리오의 탄생 과정은.

2008년 처음 구상했고 이듬해 초고를 썼다. 완성된 것은 2013년이다. 5년간 이 시나리오에만 매달렸다. 시작은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에서부터였다. 고민 끝에 시신이 들어갈 곳은 무덤이라고 생각했고, 잘못을 영원히 입다물어 줄 사람으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 후 이 상황을 가장 재미있게 묘사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가장 죄를 짓지 말아야하는 사람이라면 더 재밌겠다고 생각해 경찰을 설정했다.

◆ 영향을 준 감독이 있다면.

영향을 준 감독은 많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을 좋아한다. 해외 감독으로는 코엔 형제가 있다. 영화 '드라이브'도 좋아하는데 여기에 출연한 라이언 고슬링이 이번에 '로스트 리버'의 감독 자격으로 칸에 초청됐더라. 만나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 영화제만 즐기고 오려고 한다. 하하하.

◆ 전작은 코미디물이었는데 이번엔 범죄픽션물이다.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때 그 때 재미있는 것이 눈에 보이면 하는 편이다. 다만 유머를 곁들인 이번 영화를 하면서 내가 역시 코미디를 좋아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심각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유머가 인상적이다.

극을 처절하고 진지하게만 진행하면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웃길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톤의 매너가 중요했다. 사실감 없는 코미디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

◆ 이선균의 연기가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장르 영화긴 하지만 주인공으로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를 원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이선균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옷을 입은 것 같은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함께 해보니 더 대단한 배우라서 놀랐다. 신마다 다른 세밀한 표정을 지어 고건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 다음에는 어떤 영화를 선보이고 싶나.

더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다. 지금과 비슷한 영화를 찍어야 할 지, 다른 재미있는 것을 해야할 지, 아니면 전에 써 놓은 걸 시나리오를 끄집어내야 할 지는 모르겠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 디자인/최승미

"엄마를 잃어버린지 일주일째다..."

연극

엄마를 부탁해

6.7~6.29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출연 손숙 전무송 예지원 박윤희 전익령 조주현 김회정 이동근 황현정 장선우 이상민 김의균 조국희 김다영

주최 신시컴퍼니 CJ E&M 후원 예술의전당

엑소-K(왼쪽)와 엑소-M. 오른쪽 사진 맨 왼쪽이 크리스. /SM엔터테인먼트

역풍 불구 엑소 바람 여전히 '강풍'

크리스 사태 후 빠르게 결속…한·중 차트 동시 석권

그룹 엑소가 악재 속에서도 인기 돌풍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엑소-K는 17일 열린 MBC '쇼!음악중심'과 18일 SBS '인기가요'에서 새 앨범 타이틀곡 '중독'으로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MBC뮤직 '쇼챔피언',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이어 지상파 음악프로그램까지 모두 1위를 휩쓸었다.

또 중국 활동 그룹인 엑소-M은 같은 날 오후 생방송된 중국 최초의 순위제 음악 프로그램인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중독'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한 그룹이 한국과 중국에서 분리해 활동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같은날 각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최초다.

엑소의 인기는 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미국 빌보드의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한국 남자 가수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위상을 과시했다.

최근 중국인 멤버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충격을 줬지만 엑소는 빠르게 결속을 다지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

엑소-M은 중국 인터넷 매체 텐센트 오락과 인터뷰에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크리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6인조인 엑소-M에는 크리스를 포함해 4명의 중국인 멤버가 포함돼 있다.

텐센트 오락에 따르면 멤버 첸은 "멤버들 모두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았다"며 "오랜 꿈이었던 콘서트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속상하다"고 토로했으며 타오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월드투어를 앞두고 어느 누구의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엑소는 23~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멤버 시우민은 "이런 일을 겪게 돼 너무 당혹스럽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11명의 멤버는 단합해서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 준비에 전념하겠다. 워 아 니!"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16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당랍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 잘 지내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이 더 좋아지길 바란다. 나를 지지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런 의견에 감사하다. 우미판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중국어로 올렸다.

/유순호기자

티아라 지연 발레리나 변신

색다른 매력 20일 솔로 데뷔

솔로 데뷔를 앞둔 지연(사진)이 새 이미지를 공개하고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 지연은 지금까지 이어온 섹시한 이미지 대신 귀엽고 청순한 모습을 보였다. 소녀 감성이 돋보이는 발레복을 입은 지연은 순수한 느낌을 강조해 앨범 콘셉트에 기대를 모았다.

지연은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반대로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크다"며 "무대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도 좋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지연의 솔로 타이틀곡 '1분 1초'는 가요계 히트메이커 이단옆차기의 작품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다. 지연은 20일 첫 솔로 앨범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양성운기자

'무한도전' 날카로운 정치풍자

단일화·철새 정치안 담아 시청자 투표 첫날 3만여명

MBC '무한도전'이 제대로 된 정치 풍자를 선보였다.

17일 '무한도전'은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뽑는 '선택 2014' 특집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은 사전 여론조사 발표 후 지지율에 따른 후보 단일화 과정과 최종 토론회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발표된 각 후보의 공약과 선호도 합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4% 지지율의 노홍철이 선두로 나섰다. 유재석은 40%를 기록하며 2위에 자리했다. 3%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박명수는 자신의 명분인 '유재석 끌어내리기'와 노홍철의 공약인 '무한도전 멤버들의 사생활 공개'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명수는 노홍철을 찾아가 "내 사생활을 보호해준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주면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유재석과 단일화를 선택했다. 정형돈은 7%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준하(4%) 하하(2%)와 단일화에 성공해 "절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막판 역전극을 노렸다. 하지만 이 구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종 토론회에서 유재석이 단일화 이전에 만든 박명수를 포함한 타 후보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박명수는 지지를 철회하고 정형돈에게 돌아서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철새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무한도전' 멤버들의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이익에 따라 쉽게 이합집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또 세 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사이에선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해 공약보다 상대편 공격이 앞서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재연했다.

'무한도전'의 정치 풍자는 브라운관 밖에서 진행된 현장 투표에서 빛을 발했다. '선택 2014' 본 투표는 오는 22일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사전 투표는 서울 2개 투표소에서 17·18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무한도전' 측 집계에 따르면 17일 하루 사전 투표에선 총 3만4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도전'의 차세대 리더를 뽑는 선거가 이토록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열기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지리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지민기자

한국 영화인 칸 종횡무진

현지 언론 관심, 전도연·송혜교 배두나·김새론·송새벽 레드카펫

한국 영화인들이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제에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전도연의 일거수일투족에 현지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화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칸 데일리 특별판에 전도연이 자기 작 '무뢰한' 출연을 독점이라는 단어를 붙여 상세하게 보도했다. 버라이어티는 "심사위원 전도연이 '무뢰한'으로 스릴러에 도전한다"고 밝히며 개봉을 앞둔 영화 '협녀 칼의 기억'도 언급했다.

앞서 전도연은 14일 열린 경쟁 부문 심사위원 기자회견에서도 현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또 현지 최고급 호텔 중 하나인 마제스틱 호텔에 머무는 등 주최측으로부터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전도연은 칸 영화제에서 2007년 '밀양'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이후 2010년 임상수 감독의 '하녀'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칸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전도연 /AFP 연합뉴스

송혜교는 17일 프랑스 칸 마제스틱 호텔에서 열린 중국 영화 '태평륜'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외신 기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 오우삼 감독과 아시아 톱스타인 장쯔이, 금성무, 나가사와 마사미 등과 함께 자리한 송혜교는 "오우삼 감독은 아버지 같은 분이고, 금성무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고 밝혔다.

미국 영화 전문지 스크린 인터내셔널의 칸 데일리 특별판 표지는 송혜교 등 주연배우들의 얼굴이 담긴 '태평륜' 포스터가 장식했다.

18일에는 감독주간에 초청된 '끝까지 간다'가 현지에서 첫 상영돼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성훈 감독이 참석했다.

19일에는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된 '도희야'의 월드 프리미어 시사회가 열려 주연배우인 배두나와 김새론, 송새벽이 칸을 달굴 예정이다. 배두나는 개막 다음날인 15일 출국했으며, 김새론과 송새벽은 18일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트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태평륜'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송혜교(오른쪽에서 두 번째) /AP 연합뉴스

고질라

'고질라', 19금 '인간중독' 잡았다

3일 동안 37만 동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고질라'가 송승헌 주연의 '인간중독'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고질라'는 17일 610개 스크린에서 상영돼 19만236명을 모았다.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36만7062명을 기록했다.

'고질라'는 1954년 인간들이 깨운 존재로 인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시작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1954년 일본의 이시로 혼다 감독이 연출한 원작 '고질라', 1998년 미국의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고질라'에 이어 다시 리메이크됐다.

최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퀵실버 역과 스칼렛 위치 역으로 동반 캐스팅된 애런 테일러 존슨과 엘리자베스 올슨을 비롯해 브라이언 크랜스톤, 줄리엣 비노쉬, 와타나베 켄 등이 출연한다.

'인간중독'은 18만3791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1위에서 2위로 내려 앉았다. 누적 관객 수는 51만1628명이다.

송승헌이 '정사'(1998),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2003)의 각본을 쓰고 '음란서생'(2006), '방자전'(2010)을 연출한 김대우 감독과 만나 파격적인 멜로 연기를 펼친 작품이다.

3~5위는 '트랜센던스'(13만792명), '표적'(11만8473명)이 4위, '역린'(8만8080명) 순으로 집계됐다. /하트원기자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가 22~31일 필름포럼과 메가박스 신촌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다. 2011년까지 서울기독교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려다 올해 신앙인뿐 아니라 일반 관객도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랑' 영화제로 의미를 확장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을 찾아냅니다'라는 모토로 사랑 안에서 삶과 다양한 현실을 담은 영화를 상영한다.

또 국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쟁 부문 작품의 상영 편수와 상영관을 늘렸다. 비경쟁 부문의 작품은 영미권 뿐 아니라 동유럽·남미·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영화를 선정했다.

개막작으로는 폴란드 영화 '라이프 필스 굿'이 선정됐다. 편견과 장애를 극복해가는 한 뇌성마비 청년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24일 필름포럼에서 열릴 '시네 토크'에 마시에이 피에프르지카 감독과 배우인 카타르지나 자와츠키가 참석해 한국 관객과 만난다. /하트원기자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라이프 필 굿'

여배우 치마 속 난입 미국 드라마 '어글리 베티'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아메리카 페레라가 세67회 칸 영화제에서 봉변을 당했다. 17일(현지시간)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2' 시사회 레드카펫에서 페레라의 치마 속으로 한 남성이 뛰어들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리포터 비탈리 세디우크로 밝혀진 이 남성은 치마 속에 머리를 넣는다는 성공했으나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AFP 연합뉴스

▶ 윌 스미스에게 키스했다가 맞은 리포터군요. 장난이 짓궂네요. /하트원기자

ATM, 바르샤·레알 시대 끝냈다

프리메라리가 18년 만에 우승 감격

아들레티코 마드리드(이하 ATM)가 18년 만에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정상에 올랐다.

ATM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에서 FC바르셀로나와 1-1로 비기며 승점 3점차로 우승을 차지했다. ATM과 리그 첫 대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던 바르셀로나는 이날 승리를 거두면 승점 89로 동점이 되면서 승자승 원칙으로 우승까지 할 수 있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스페인국왕컵 우승이 무산된 데 이어 2008년 이후 처음 무관으로 시즌을 마쳤다. 헤라르도 마르티노 감독은 경기 후 사퇴했다.

반면 ATM은 전통의 강호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끈질긴 추격에도 줄곧 정상을 지키며 1995~1996시즌 이후 처음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팀이 프리메라리가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발렌시아 이후 10년 만이다.

또 2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리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승리할 경우 ATM은 올 시즌 세계 클럽 축구에서 가장 큰 2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된다.

이날 리그 최종전에서 승기는 바르셀로나가 잡았다. 알렉시스 산체스가 전반 3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리오넬 메시가 기습으로 트래핑한 볼을 잡아 골로 마무리했다.

ATM은 간판 스트라이커 디에고 코스타가 전반 16분 부상으로 교체되고, 미드필더 아르다 투란 마저 전반 40분 엉덩이 통증으로 빠지며 수세에 몰렸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후반 들어 다비드 비야가 연달아 날카로운 슛으로 상대 골문을 두드렸고, 결국 후반 4분 만에 수비수 디에고 고딘이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시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올 시즌 ATM과 5차례 맞대결에서 무득점했던 메시는 이날도 침묵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고딘이 동점골을 성공시킨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뉴시스

'짠물' 커쇼 7실점 2회 강판

다저스 에이스 부진 충격

다저스 마운드의 기둥 클레이튼 커쇼(사진)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는 1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해 1⅔이닝 6피안타 2볼넷 7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1회를 깔끔하게 삼자범퇴로 처리한 커쇼는 2회 선두타자부터 볼넷으로 내보냈고, 이후 소나기 안타를 맞으며 대량 실점했다. 볼넷 2개, 3루타만 3개를 허용하는 등 커쇼의 이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던 이닝이 펼쳐졌다. 심지어 보크까지 범한 커쇼는 2회를 채 끝내지 못한 채 제이미 라이트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커쇼의 방어율은 1.74에서 4.43으로 치솟았다.

커쇼가 무너지자 다저스도 패했다. 다저스는 7회에만 골드슈미트에게 석 점 홈런을 허용하는 등 대량 실점하며 추격 의지를 잃었다. 다저스는 7-18로 완패했다.

/유순호기자

추신수가 8회 두 번째 삼진을 당하고 허탈하게 타석에서 물러나고 있다. /AP 오픈뉴스

추신수 세 경기 만에 안타

추신수(32)가 처음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의 3번 타자로 출전해 잠들었던 방망이를 깨웠다.

추신수는 18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프린스 필더가 목 디스크 증세로 결장하면서 붙박이 1번 타자인 추신수는 3번에 배치됐다.

세 경기만에 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05에서 0.303으로, 출루율은 0.431에서 0.427로 각각 떨어졌다. 추신수는 6회 2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맞은 세 번째 타석에서 좌익수 앞 안타를 쳤다.

최근 심판들의 오락가락하는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타격감을 잃은 추신수는 이날도 두 차례나 삼진을 당하며 최근 10경기 연속 삼진을 기록했다. 전날 에이스 다르빗슈 유의 호투에도 0-2로 진 텍사스는 이날도 2-4로 패해 4연패에 빠졌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8일

■잠실

NC	000	010	000	0
두산	000	010	102	4

[illegible]

■대전

SK	100	010	000	2
한화	200	002	10X	5

[illegible]

■광주

삼성	001	000	001	0
KIA	101	000	000	2

[illegible]

■사직

넥센	000	011	301	6
롯데	305	201	01X	11

[illegible]

프로축구 전적 18일

서울	1	0	전남

[illegible]

제임스 한·박희영 동반우승 조준

PGA·LPGA 3R 선두 추격

17일 열린 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박희영이 18번홀 버디샷을 놓친 후 안타까워하고 있다. /AP 뉴시스

재미교포 제임스 한(33·한국이름 한재웅)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제임스 한은 18일 미국 텍사스주 어빙의 포시즌스 리조트 TPC에서 열린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5개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5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1타를 친 제임스 한은 공동 선두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브렌든 토드(미국·이상 10언더파 200타)보다 1타 뒤진 공동 3위에 올라섰다.

2012년 PGA 투어 2부 투어에서 뛰었던 제임스 한은 지난해 PGA 투어에 진출했고 아직 우승은 하지 못했다.

또다른 재미교포 존 허(24)도 4타를 줄이며 공동 13위(6언더파 204타)에 올라 마지막 날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같은날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킹스밀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는 박희영(25·하나금융그룹)이 선두에 3타 뒤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박희영은 중간합계 10언더파 203타를 쳐 리젯 살라스(미국·13언더파 200타)에게 선두를 내줬다. 그러나 살라스를 3타차로 쫓고 있어 역전 우승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프로 데뷔 후 LPGA 투어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는 중간합계 8언더파 205타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리디아 고는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출전하지 않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다.

/유순호기자

NCSI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